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951 - 96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최 명 심†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PIL(Purpose In Life) 검사, 자존감 척도, 문제 해결 인식도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실시하였다. PIL 점수에 의해 높은/ 중간/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자료의 처리는 상관, t-검증,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PIL과 자존감,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직면-회피, 자기 통제와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모든 변인들이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2)성차를 알아본 결과 PIL, 자존감,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 직면-회피 및 자기-통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종교의 유무에서는 PIL 수준과 문제해결의 확신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3)PIL 수준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PIL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직면-회피 및 자기-통제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삶에서 갖게 되는 기대나 목적이 선명할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문제 상황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삶의 의미,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종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명심,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063) 270-2925, E-mail: genes225@hanmail.net

www.kci.go.kr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인 불안감과 무의미감, 소외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청년기는 생리적, 심리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들은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참여에 대한 압력으로 혼란을 경험하며, 자신이 누구이며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 위치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Jung은 이 시기를 '정신적 탄생'이라고 불렀는데, 정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년기 동안 정신은 모든 문제와 여러 결단의 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응해가야 하며, 특히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직업 탐색과 직업 확립을 위한 시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다양한 갈등 가운데 이들은 삶에 대한 자세나 문제해결 방법들을 배워가면서 여러 형태의 성공과 좌절을 함께 경험한다. 그러나 일부는 자신의 실패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받아들여 적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좌절감에 대한 원인을 Frankl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데서 오는 공허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Frankl(1967)은 삶에 있어서 문제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삶의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어떤 것을 찾고 있으며,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실존적 욕구불만에 빠질 때 실존적 공허를 겪게 되며 이는 자신의 성장에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도시화, 거대화, 획일화, 물질 숭상화로 전통적인 사회관의 붕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치 상실, 의미 상실, 고독감, 갈등, 소외감 및 실존감의 상실로 정신적 혼란과 실존적 공허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는 삶에 대한 회의, 우울, 불안 등으로 이어져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불안, 우울 및 신경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Tillich는 핵무기와 우주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무의미감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Fabry, 1985).

이러한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의식과 의미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서 자신의 문제와 세계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기이다. 신숙희(1982)와 이정화(1986) 등은 의미치료의 이론에 입각해서 삶에 대한 목적 수준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대학생들의 47.8%가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Simmons와 Van Cleave(1979)는 삶의 의미는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별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에 의한 판단보다는 현재나 미래의 만족과 관련지어 판단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할 때 느끼는 감정은 자존감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거나 자신이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임을 느끼게 될 때 자존감을 경험하게 된다. 자아에 대한 확신감이나 긍정적인 기대감을 지닌 사람들은 생활 장면

www.kci.go.kr

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역경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현실을 극복해 가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면서 삶의 포부나 성취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잠재력 계발 또한 보다 풍성해지게 된다.

자존감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인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Harter, 1990), 성취행위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고(Bednar, Wells, & Peterson, 1995),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향상된다(Lazarus, 1991)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즉, 부모와 또래의 풍부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받으며 문제에 직면하여 현실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자신에게 당면한 일을 훌륭하게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존감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화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적인 강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움츠러들어 이후의 과제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ckner, 1979; Brockner, Laing, & Derr, 1987).

Brockner(1979)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개인은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실패경험으로 인해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자존감은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에 부딪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의 습관과 경험을 토대로 발달시켜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해 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목표설정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문제 상황에서 가장 도달하고 싶은 해결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목적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킬수록 목표 도달이 보다 용이해지고 그에 따르는 문제해결의 방법들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삶의 태도와 자신에 대한 기대는 내면의 가치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가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인식에 의해 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에 있어서 성차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김은경(198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제해결에 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선, 1986)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감과 자신의 통제 영역에서 여자 대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내부 지향적일수록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Heppner와 Peterson(1982)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와 성공에 대한 기대 및 그들의 능력에 대한 인식도에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덜 충동적이고 문제 상황을 직면하여 더 체계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Mendonca와 Siess(1976)는 우유부단한 학생을 상대로 문제해결력을 측정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우유부단함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Heppner와 Reeder(1983)의 연구에서도 자신에 대

www.kci.go.kr

해 스스로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문제 해결자로 생각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의 핵심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며, 높은 자아개념과 낮은 자기 비판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합리적인 사고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aumgardner(1990)는 강한 정체감이나 확신감을 가질 때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통제력과 결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불신하며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보다는 외부의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Marks & Gelder, 1966)이며,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으나 그러한 인상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느낄 때 경험하는 불안이다(Schenker & Leary, 1982).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게 보여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최정훈, 이정윤, 1994).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만든 Watson & Friend(1969)는 이를 수치심과 겹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대학 시기는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려는 욕구와 심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치, 믿음, 주체성, 직업 또는 이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며 변화와 압력과 실망, 상처로 인한 분노, 자존심의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죄의식 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정석환, 1989).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평이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은 대학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중의 하나로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김창대, 김수임, 2001).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개인에게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인 대인관계는 정신질환 발생의 근원이 되며 좌절감과 두려움을 야기하며 자기 신뢰감이나 자아 존중감이 부족해지게 되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한다(이형득, 1992, 박민수, 2002).

Frankl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발견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Einstein의 말을 인용하면서 궁극적 의미 즉, 초월적 의미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Frankl, 1985). 동승자(2001)는 청소년이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하며, 93.6%의 학생이 자기존재, 신,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면이 최적의 통합된 상태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종교는 개인에 있어서 삶의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생활자체가 될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영성적 성숙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www.kci.go.kr

특히 자기중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의미에의 의지를 주장하는 의미치료는 성서적인 인간이해와 많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향한 개방성은 초월의 결단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Soderstrom과 Wright(1977)는 18세에서 20세까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앙심은 삶의 의미의 확장을 뜻하며 불신앙은 삶의 의미의 결여 혹은 의미를 더 적게 발견함을 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종교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연구에서 Chamberlain과 Zika(1988)는 종교와 삶의 만족 혹은 행복과의 약한 관계만을 주장하지만, Spreitzer와 Snyder(1974), Clemente와 Sauer(1976) 등 경험적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종교가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수입, 결혼, 인종보다 강한 변수임을 밝히고 있으며, 정동락(1987)도 신앙심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삶의 의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삶의 의미와 성별에 관한 연구 결과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정홍주(1982)의 연구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삶의 의미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반면 박수경(1992), 신숙희(1982), 정종진(1985)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연중(1998)도 학력, 성별, 결혼여부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 수준은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의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빈도	percent
성별	남	146	52.7
	여	131	47.3
연령	만20세 이하	32	11.5
	만21세	50	18.1
	만22세	57	20.6
	만23세	41	14.8
	만24세	54	19.5
	만25세 이상	43	15.5
학년	1학년	20	7.2
	2학년	53	19.1
	3학년	155	56.0
	4학년	49	17.7
종교	기독교	84	30.3
	천주교	34	12.3
	불교	17	6.1
	원불교	1	.4
	유	136	49.1
	무	141	50.9

www.kci.go.kr

하위 유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으며, 삶의 태도와 기대수준의 차이가 이들 변인들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서 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삶의 의미 수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지방 소재 J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도구

삶의 의미 척도(Purpose In Life Test: PIL). 삶의 의미 척도는 Frankl의 기본 개념인 실존적 공허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Crumbaugh와 Maholick(1969)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삶의 의미 척도는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첫째 부분은 집단 연구에 사용되어 객관적인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태도 척도이다. 척도의 최하 점수는 20점, 최고 점수는 140점이며, 규준점수는 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적과 의미의 정도가 높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분은 13개의 문항을 완성하는 것이고, 셋째 부분은 삶의 개인적인 목표나 소망을 쓰는 것으로, 임상적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분만 택하여 NamKung(1980)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이정지(1995)가 5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부분의 문항은 인생목적, 목표달성, 생활척도, 실존적 공허, 미래 열망, 내외적 자치통제, 자아충족 및 인생관 등의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Crumbaugh와 Maholick(1964)가 개발할 당시 .85였고, NamKung(198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한 정홍주(1982)의 연구에서는 .95,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한 이정지(1995)의 연구에서는 .84였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1965년 Rosenberg가 개발한 것으로 전반적인 자기 개념과 관련된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0문항으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요인분석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문제해결 인식도 검사(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 문제 해결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제해결 인식도 검사는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한 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에서 3번 문항은 역전해서 계산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www.kci.go.kr

더 성공적인 문제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세 가지 문제해결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를 측정하는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11문항),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가를 측정하는 직면-회피(16문항)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정서적인 통제를 가능하게끔 하는가를 측정하는 자신의 통제(5문항) 등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85, 직면-회피 .79, 자신의 통제는 .51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 Brief: Brief FNE). 이 척도는 1969년 Watson과 Friend가 원래 30문항으로 제작한 것에서 Leary가 전체 점수와 .50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들만 뽑아서 만든 것으로 1996년 이정윤이 번안한 척도이다. 총 12 문항으로, 원래 진위형으로 되어 있는 척도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변화에 보다 민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 점수는 12점에서 6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FNE 단축형은 내적 합치도가 .90이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으며, 이정윤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89로 나타났다(김은정, 1999).

자료 분석 방법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 판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후, 제반 변인들에 대해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PIL점수에서 M± 1SD를 기준으로 63점 미만을 낮은 집단, 83점 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하여 자존감, 문제해결의 세 가지 하위 유형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Tukey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삶의 의미 수준을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삶의 의미,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의미 수준과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의 세 가지 하위 유형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간의 상관계수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결과 삶의 의미 수준과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의 하위 유형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부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감을 가질수록 삶에 대한 목적을 더 뚜

www.kci.go.kr

렷이 세우고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녔음을 보고한 것을 통해 각 영역별로 성차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삶의 의미 수준에서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_{(266)}$=2.02, p<.05. 아울러 자존감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 (274)=3.11, p<.01, 문제 해결 인식도의 하위 유형인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직면-회피 및 자기 통제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272)=3.34, p<.01;t (272)=2.16, p<.05;t (275)=2.75, p<.01.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서적 통제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표 2. 삶의 의미,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삶의 의미	자존감	확신	직면-회피	자기통제
삶의 의미					
자존감	.63**				
확신	.50**	.53**			
직면-회피	.35*	.31**	.67**		
자기 통제	.31**	26**	.49**	.35**	
부적 평가	-.19**	-.26**	-.17**	.01	-.23**

*p<.05, **p<.01

표 3. 성별에 따른 삶의 의미 수준,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변인	성 별		t
	남자(n=146)	여자(n=131)	
자존감	37.21(5.64)	35.02(6.09)	3.11**
삶의 의미 수준	73.90(10.39)	71.47(9.67)	2.02*
문제해결 확신	40.48(5.83)	37.92(6.70)	3.34**
직면-회피	56.76(9.10)	54.90(7.10)	2.16*
자기 통제	13.26(2.39)	12.44(2.57)	2.75**
부정적 평가	39.21(9.60)	41.95(8.26)	-2.53**

*p<.05, **p<.01

www.kci.go.kr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275)=-2.53, p<.01.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더 뚜렷한 삶의 목적 수준을 설정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차이검증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녔음을 보고한 것을 통해 각 영역별로 종교의 유무에서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t (266)=2.23, p<.05, 문제 해결의 확신에 있어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더 높은 확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272)=1.97, p<.05. 자존감, 직면-회피, 자기 통제 및 부정적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

표 4. 종교의 유무에 따른 삶의 의미 수준,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변인	종교 유무		t
	종교 유(n=136)	종교 무(n=141)	
자존감	36.58(5.59)	35.78(6.28)	1.12
삶의 의미 수준	74.16(9.51)	71.43(10.51)	2.23*
문제해결 확신	40.04(5.82)	38.53(6.81)	1.97*
직면-회피	56.30(6.88)	54.90(7.10)	.96
자기 통제	12.92(2.49)	12.83(2.53)	.30
부정적 평가	41.30(10.04)	39.73(8.00)	1.44

*p<.05

표 5. 각 집단별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구분	삶의 의미 수준			F	사후비교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		
자존감	41.93(4.91)	36.26(4.68)	29.64(5.32)	71.305***	1>2>3
문제해결확신	43.98(6.48)	39.41(5.25)	33.81(6.45)	35.318***	1>2>3
직면-회피	60.07(7.25)	55.88(6.37)	51.29(7.40)	18.704***	1>2>3
자기 통제	14.33(2.34)	12.80(2.26)	11.30(2.76)	18.269***	1>2>3
부정적 평가	37.72(9.06)	40.44(9.27)	43.91(7.58)	5.298**	1<3

**p<.01, ***p<.001

사후비교에서 1은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 2는 중간 집단, 3은 낮은 집단이다.

www.kci.go.kr

들이 보다 더 높은 삶의 의미 수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며, 문제 상황에 당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의미 수준과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차이검증

PIL 수준을 세 집단(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과 자존감, 세 가지 유형의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결과 삶의 의미 수준은 자존감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 (2, 264)=71.305, p<.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Tukey 사후 검증 결과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삶의 의미 수준에 따라 자신의 유능성과 중요성 및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삶의 의미 수준은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문제에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접근-회피, 정서적 통제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F (2, 262)=35.318, p<.01; F (2, 262)=18.704, p<.01; F (2, 265)=18.269, p<.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 검증을 한 결과 세 가지 하위 유형 모두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낮은 집단과 중간 집단 그리고 중간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의미 수준에 따라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감이 다르고, 문제를 현실적으로 직면하여 새로운 해결 상태로 전환하려는 힘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영역에서 본인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삶의 의미 수준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F (2, 265)=5.298, p<.01, Tukey 사후 검증 결과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변수	R	R^2	ΔR^2	ΔF	B	β	t
1단계							
학년	.153	.023	.020	6.335	-1.985	-.153	-2.517**
2단계							
학년	.207	.043	.036	5.892	-2.890	-.223	-3.304**
연령					.782	.156	2.312*
3단계							
학년	.238	.057	.046	5.266	-2.761	-2.13	-3.164**
연령					.767	.153	2.280*
종교					-2.396	-.119	-1.971*

*p<.05, **p<.01

www.kci.go.kr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성별, 연령 및 종교의 유무 등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첫 단계로 투입된 학년 변인은 전체 변량의 2.0%를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연령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변량이 3.6%로 증가하였고, 세 번째로 종교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전체 변량의 4.6%로 설명변량이 증가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학년, 연령 그리고 종교 변인이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각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학년 변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녔으며 β=-1.53, p<.01, 그 다음으로 연령 β=.156, p<.05과 종교 β=-.119, p<.05로 나타났다.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첫 단계로 투입된 자존감 변인이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37.3%로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해결 인식도의 세 가지 하위 유형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변량이 전체 변량의 41.4%로 증가하였다. 문제해결 인식도의 세 가지 하위 유형이 삶의 의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이 전체 변량의 4.1%를 차지하였으며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였다. 이 단계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자존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이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각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자존감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β=.494, p<.01,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감 β=.146, p<.05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의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었다, β=-.011. 이는 높은 자존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적 중다 회귀 분석

변수	R	R^2	ΔR^2	$\triangle F$	B	β	t
1단계							
자존감	.613	.375	.373	155.511	1.040	.613	12.470**
2단계							
자존감					.838	.494	8.848**
문제해결 확신	.651	.423	.414	46.956	.232	.146	1.925*
직면-회피					.112	.080	1.249
자기 통제					.270	.068	1.299

*p<.05, **p<.01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의미,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의 하위 유형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고, 삶의 태도와 기대 수준에 따라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에서 어떠한 요인이 삶의 의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먼저 삶의 의미 수준과 문제해결 인식도의 하위 유형 및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기 확신감과 자존감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자존감과 자기 확신감이 낮을수록 행동 유연성이나 변상성이 더 크다는 정현지(199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정체감이나 확신감이 클수록 미래에 닥칠 문제에 통제력과 결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감이 커질수록 자존감 또한 향상된다는 연구결과(Baumgardner, 1990)와도 일치한다.

삶의 의미 수준과 자존감, 문제해결 인식도의 하위 영역 및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성차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삶의 의미 수준, 자존감 그리고 문제해결 인식도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하여 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새로운 해결 상태로 전환하려는 힘이 더 많으며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PIL점수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정인숙(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문제 해결 상황에서 대처 방식이나 자신의 통제영역에서는 성차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Endler와 Parker(1990)의 연구결과와 모순되는데, 이는 동양과 서양의 학습된 성역할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점수가 보다 더 높은 편이어서 여학생들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더 뚜렷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문제 해결 상황에서 강한 확신으로 자신을 잘 통제하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현실적으로 문제에 직면하며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의 유무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삶의 의미 수준과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였

www.kci.go.kr

다. 아울러 인구학적 특성들 중에서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학년, 연령 및 종교가 의미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Soderstrom과 Wright(1977)가 18세에서 20세까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앙심은 삶의 의미의 확장을 뜻하며 불신앙은 삶의 의미의 결여, 혹은 의미를 더 적게 발견함을 뜻한다고 지적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종교적 신념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해석된다.

자존감과 문제해결 인식도의 세 유형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의미 수준(상, 중, 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존감과 문제 해결 인식의 세 가지 유형에서는 세 집단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고하였다. 즉,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하며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에 직면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능력은 삶의 의미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변인들이 삶의 의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실시한 분석에서는 자존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높은 자존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보다 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당면하였을 경우에 보다 확신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문제 상황에서 보다 더 확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여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한 정체감이나 확신감을 가질 때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한 통제력과 결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적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불신하며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결정보다는 외부의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Baumgardner (1990)의 연구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않고 꿋꿋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삶의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대학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자는 인구

www.kci.go.kr

통계학적 요인들 가운데에서는 학년, 연령 및 종교가 삶의 의미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존감과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대학생의 삶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설명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이들 변인 외에도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요인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실업의 공포, 일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지겨움, 거의 기계에 예속되는 것과 다름없는 비인간화의 과정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얽혀서 그야말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은 거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척도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삶의 의미 수준이나 문제해결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평가하고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보고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경선 (1986). 대학생의 자아실현성과 문제해결 인식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연중 (1998). 내적 통제성에 따른 삶의 의미와 종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경 (1984). 가정환경과 개인의 문제해결 인식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창대, 김수임 (2001). 대인관계 능력 개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서울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35(1), 83-95.

동승자 (2001). 광명시 청소년 영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영성 토론회. 광명시 청소년 상담실.

박민수 (2002).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기독교 상담 학회지, 4, 56-78.

박수경 (1992). Logotherapy 이론에 비추어 본 상고생과 공고생의 삶의 목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숙희 (1982). 대학생의 실존적 공허에 대한 조사 연구 -의미치료에로의 접근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지 (1995). 의미간호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목적과 의미 발견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정화 (1986). 대학생의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형득 (1992).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 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정동락 (1987). 의미치료의 관점에서 본 중년기 교인의 신앙도와 삶의 의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석환 (1989). 카운슬링가이드. 서울: 기독 지혜사.

정인숙 (1985). 교회청년에게서의 PIL Test와 SONG Test 반응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

www.kci.go.kr

구논문.

정종진 (1985). 대학생의 인생목적과 내적 통제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 학생생활연구, 12. 65-84

정현지 (1991). 자아존중감에 따른 자기확신감의 변화와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홍주 (1982). 학교상담에 있어서의 Logotherapy적용을 위한 일 연구: 고교생의 의미에의 의지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6(1), 21-47.

Baumgardner, A. H. (1990).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 certainty and Sel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62-1072.

Bednar, R. L., Wells, M. G., & Peterson, S. R. (1995). *Self-esteem*(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rockner, J. (1979). The effects of self esteem, success-failure and self consciousness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32-1741.

Brockner, J. Laing, W. N., & Derr, W. R. (1987). Self esteem and reaction to negative feedback: Toward greater generalize abi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318-334.

Chamberlain, K., & Zika, S. (1988). Religiosity, life meaning and well 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411-420.

Clemente, F., & Sauer, W. J. (1976). Life satisfac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54,* 621-631.

Crumbaugh, J. C., & Maholick (1969).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Monster: Psychometric Affiliates.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Concepts, Issues, and measurement.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4,* 309-320.

Fabry, B. H. (1985). 의미치료(고병학 역). 서울; 다밀란.

Frankl, V. E.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Frankl, V. E. (1985). 무의식의 신(정태현 역). 왜관: 분도출판사.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Heppner, P. P., & Peterson, C. H.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537-540.

Heppner, P. P., & Reeder, B. L. (1983). Cogni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problem solving appraisal: Implication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537-545.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amKung, & Dalwha (1980). *Purpose in life among Korean high school sen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Marks, I., & Gelder, M. (1966). Differents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1.

www.kci.go.kr

Mendonca, J. D., & Siess, T. F. (1976). Counseling for Indecisiveness Problem Solving and Anxiety Measurement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4).* 339-347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Sch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re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Simmons, R. G., & Van Cleave, E. F. (1979). Entry into early adolescence: The impact of self-este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48-967.

Soderstrom, D., & Wright, E. W. (1977). Religious orientation and meaning in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65-68.

Spreitzer, E., & Snyder, E. (1974).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29,* 454-458.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원고접수일: 2007년 8월 8일
수정원고접수일: 2007년 10월 8일
게재결정일: 2007년 10월 16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7. Vol. 12, No. 4, 951 - 967

The Effects of Purpose in Life on Self-Esteem, Problem solving aptitude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yungShim Choi ChongNak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purpose in life on self-esteem, problem solving aptitude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t the study, 277 students completed four questionnaires; PIL test, self-esteem, problem solving aptitudes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PIL test if utilized to measure the level of purpose in life and High/Middle/low groups are classified from the result. Correlation, t-test, ONEWAY and Stepwise Regression were applied to analys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of the PIL, self esteem and problem solving aptitudes were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but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a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Second, the male and female difference in PIL, self-esteem and problem solving aptitudes were showed male students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than female students. At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was showed female group reported the higher level than male. In PIL and problem solving, religious group was higher than irreligious group. Third, the classified groups from PIL level were reported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self-esteem, problem solving,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igh level of PIL was related to high self-esteem, problem solving subscale and to low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high group students conceit that good problem solver for oneself. At the result, the specific and concrete purpose can increase of self efficient and more successive result.

Keywords : purpose in life on self-esteem, problem solving aptitudes, fear of negative evaluation, religious

www.kci.go.kr